

#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영(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최현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금융시장의 발달과 다양한 거래 수단의 등장,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여자가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확장되었다. 청소년이 금융시장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금융역량을 증진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어린 시절 간접적인 금융 관련 대화와 경험,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손상희 외, 2017; 안드레아 브라운, 2002)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와 가족이나 또래집단, 미디어 등을 통한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바람직한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 지식과 금융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실시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금융역량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지식과 태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금융지식의 경우 2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금융태도의 경우 돈에 대한 태도와 위험수용성향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금융사회화 수준은 2.8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이며, 대행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를 통한 금융사회화 수준이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또래집단(2.8), 학교(2.7), 미디어(2.6)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금융지식 수준은 46.8점(100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지식 수준이 낮았다. 돈에 대한 태도는 4.0점(5점 만점)으로 돈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험수용성향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선호적임을 의미하는데, 2.3점으로 평균 정도의 수익과 위험을 추구하였다. 재무관리행동은 5점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예산수립, 저축, 계획적인 소비지출 등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본 조사에는 평균 2.9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이 금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또래집단은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는 반면 학교와 미디어는 긍정적 태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학교는 금융 지식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는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은 모두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형성하는 데 정적(+) 영향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선호적일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금융사회화는 청소년의 금융 지식, 태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에 따라 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